

春城郡芳洞里的

高句麗式石室墳二基

金 元 龍

지난 二月八日 文化財管理局의 依頼로 金基雄專門委員과 함께 春川市中島의 遺蹟現況을 調査하러 갔을 때 金基雄先生으로부터 中島西쪽 對岸의 芳洞里的 申崇謙墓附近에 三角形받침돌의 石室墳이 있다는 말을 春川市關係者들로부터 들은 일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정말이라면 中島의 積石塚二基、楊平 汶湖里的 積石塚와 함께 高句麗古墳일 것이라는 意見を 交換하였다.

汶湖里的 積石塚는 黃龍渾교수에 依해 調査發表되어① 그것이 高句麗의 古式 川石築積石塚인데서 우리들의 큰 關心을 끌은 바 있으나 이제 抹角天井石室墳의 存在가 春川地方에서 確認된다면 더욱 意義가 있을 것 같아 마침 二月十一日의 選舉公休日을 利用、現地를 踏査하고 그것이果然 高句麗式의 抹角받침 天井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古墳은 二基이고 封土가 削平되고 天井部가 破壞되고 玄室이 土砂로 묻혀 그 構造의 全貌를 밝힐 수는 없었으나 그것이 南韓에서는 볼 수 없는 抹角받침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一但 高句麗代임을 알 수 있어 將次的 整理發掘에 앞서 略報로서 于先學界에 紹介해 두고자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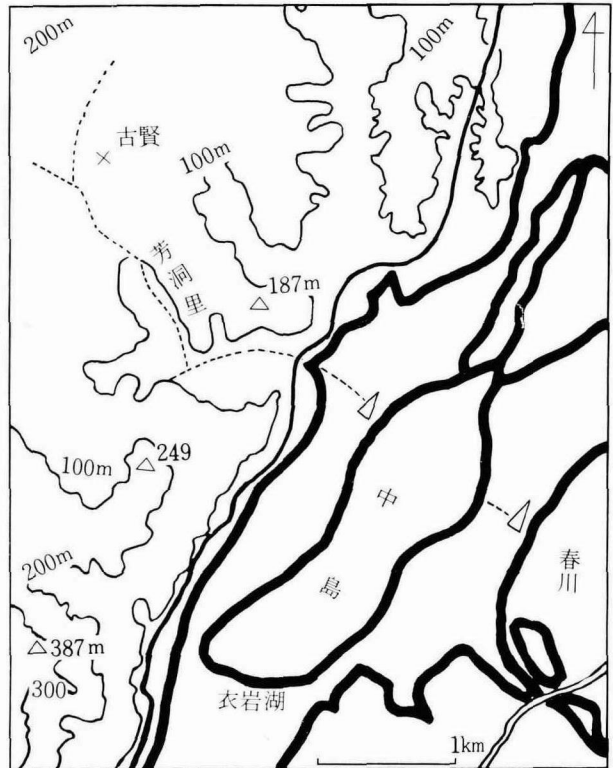


圖 1. 古墳位置圖

三

春城郡西面芳洞里는 春川市에서 보면 새로 생긴 衣岩湖(北漢江과 昭陽江의 合流點에 댐을 만들어 造成)의 西岸에 있으며 春川으로부터는 渡船으로 中島로 건너가 中島를 橫斷 다시 渡船으로 西岸으로 到達할 수 있으나 서울에서 가려면 春川 못미처 댐으로 건너가는 地點에서 댐을 건너지 말고 左側 非鋪裝道路로 들어 湖畔山腹을 짚은 좁은 道路(트럭은 서로 비켜나가기 不可能)를 약 八km가면 나온다(圖1)。그러나 洞里는湖畔에서 약 二km정도 溪谷안으로 西進해야 하고 그 길에서 멀리 右側山腹을 보면 申崇謙墓의 墓域이 分명한데 問題의 古墳은 이 申崇謙墓의 向左側 약 三百미터 위치、高度는 若干 낮게 자리잡고 있다. 申崇謙墓域은

近來 地方文化財로 새로 淨化되어 管理建物들이 생겨 있고 이 管理建物 바로 뒤에 鐵網으로 둘러 區域안에 古墳이 있기 때문에 쉽게 찾아갈 수 있다.

古墳이 있는 山腹은 比較的 緩慢한 南面傾斜地로서 古墳位置는 海拔 高는 約一五〇m 정도이다. 附近에는 岩石露頭가 한두군데 보이기 는 하나 岩石地帶는 아니고 土砂도 부드러워 壙을 파기는 쉬우나 石材는 現地調 達이 어려운 形便으로 보였다.

古墳은 二基가 中心距離 約 二〇m 를 두고 東西로 나란히 位置하고 있 고 封土는 거의 없어서 地表위 四〇cm 정도의 堆土 흔적이 直經 七m 정도



圖 2. 第一號墳遠景(矢印)

로 남아 있을 뿐이다.
至今 두 古墳中 向左側(西) 것을 一號墳、右側 것을 二號墳으로 하고 그 대강을 記錄하면 다음과 같다.

第一號墳

前述하다시피 封土는 거의 없어지고 蓋石이 露出되어 있다. 가까이 가 보면 玄室天井의 南半部의 돌이 모두 없어졌고 天井에서 約 八〇cm 높 이 部分까지 흠으로 매워져 있다. 必是 盜掘흔이 古墳의 羨道와 玄室接 部를 위로부터 뚫고 天井石을 들어내고 들어갔던 모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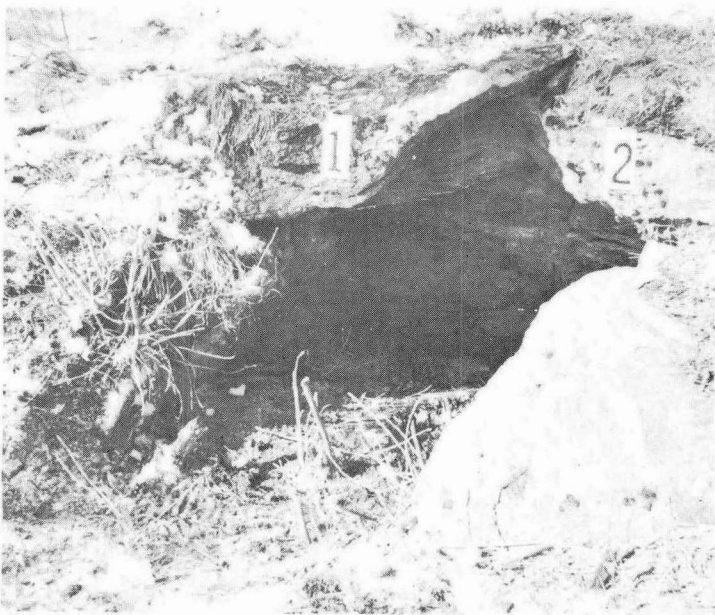


圖 3. 第一號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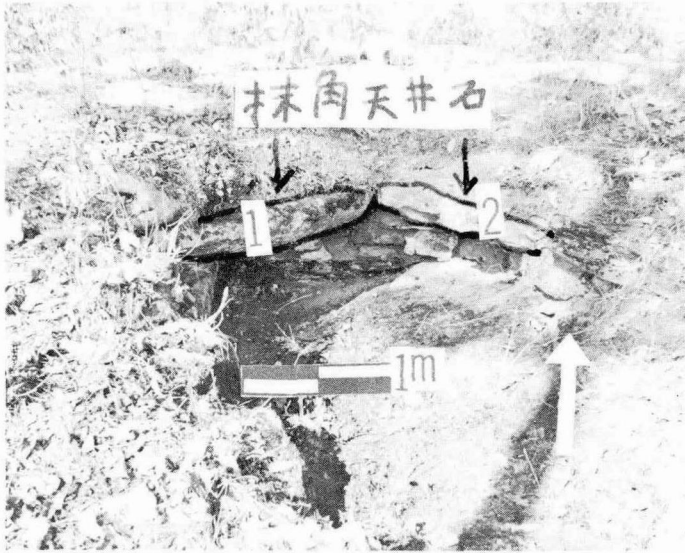


圖 4. 第二號墳



圖 5. 第二號墳 近景

玄室의 四壁은 大小不整의 다듬지 않은 片岩으로 길이로 쌓기만 한 것인데 南壁만은 東端의 一石以外는 모두 없어졌거나 凍土에 가리워져 羨道有無나 크기를 알 수가 없다.

○度 東偏하고 있다.

至今 天井三角石 바로 밑 部分에서의 平面은 東西 〇·九 m、南北 一·四 m의 矩形인데 四壁의 上部는 內傾한 것이어서 天井石下 八〇 cm에서는 東西 一·一 m(南北은 不明)로 되어 있다. 玄室의 入口는 北에서 三

三角받침돌은 現在 北쪽 것만이 남아있고 寫眞 3의 1、2號石이 그것인데 확실히 北壁의 거의 中央部에서 各各 西·東壁으로 깊숙히 걸쳐

놓은 것으로 面을 다듬지 않았고 맨 위 蓋石이 없어졌으나 高句麗古墳의 抹角天井構造를 根本적으로 따르고 있음은 分明하다. 이 點은 構造를 좀더 精査할 수 있었던 다음 第二號墳에서 더 明白해 진다.

第二號墳

第二號墳은 封土의 狀態、石材、玄室長軸 등 모두 第一號墳과 같으나 玄室의 크기는 훨씬 크다(圖 3、4、5).

玄室안의 埋土는 東半部가 열어서 南部의 거의 全部와 東壁의 南쪽 끝

부분을 밝힐수 없었으나 南壁의 西쪽 끝돌이 남아있어 四壁의 平面은 天井石 바로 밑에서 東西 一·六三m、南北 一·九三m、天井石(三角받침) 下 五五cm 깊이에서 東西 二·一m、南北 二·四m 정도가 된다. 그러나 이것이 四壁이 모두 윗부분이 內傾한 것이고 平面은 南北이若干 길은 矩形이지만 一號墳보다는 方形에 가까운 쪽이다. 南壁의 原狀은 至今 正確히 밝힐 수는 없으나 南壁의 西端 一石은 入口의 側壁一部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高句麗古墳의 例로 미루어 보아도 南壁中央에는 넓고 높은 羨道가 달려 있었다고 推測된다.

抹角받침돌은 一號墳처럼 北半部 只만이 남아있는데 第一石의 長邊 길이는 一·三m、第二石의 그것은 〇·九m가 된다. 圖6에서 보듯이 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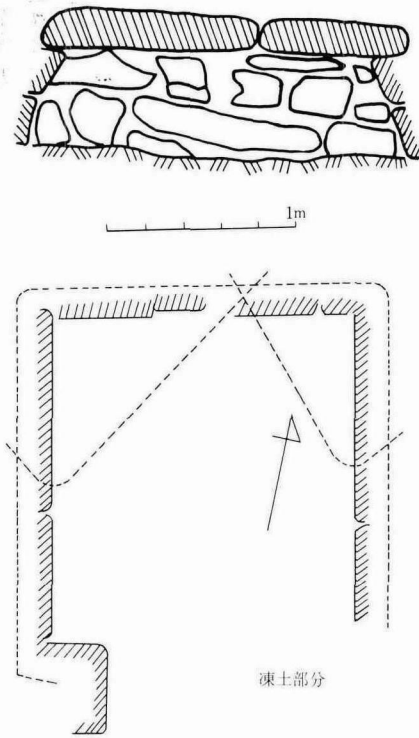


圖 6. 第二號墳 略式實測圖

三角石들은 한 벽의 거의 中央部에서 中央部로 각각 걸쳐 있으며 南半部의 二石이 있었다고 할 때 天井部의 마지막 空間은 一·三×〇·九m 정도의 面積이 되어 一石으로 덮기는若干 넓은 것 같고 또一段의 三角받침이 없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二號墳에서는 壁石에 두께 二(三)미리 정도의 灰칠이 굳어있으나 남아 있었으며 一號墳에서는 없었으나 元來는 두墳이 모두 壁面을 灰칠로 단장하였던 것이라고 믿어진다.

또 兩墳 모두 玄室의 높이를 알 수 없으나 圖面上으로 復元하여 볼 때 모두 一·五m는 넘어서리라고 推測된다.

三

以上 보듯이 이 두 古墳은 採石한 채로의 大小石材를 空積하고 灰칠을 한 石室墳으로서 玄室은 南北이若干 길은 方形 가까운 矩形이고 四壁은 위를 內傾시켜 그위에 一 또는 二段의 抹角天井石(三角形 받침돌)을 놓고 頂上에 一枚石을 덮었고 南壁에는 中央에 羨道가 달려있던 墓形式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같은 石室墓는 漢江以南의 南韓地域에서는 볼 수 없고 通溝나 平南大同郡地方의 高句麗墳에서 보는 形式이며 특히 後期壁畫古墳이 들어 있는 平壤眞坡里古墳群들이 그러한 形式이다②. 即 이들 古墳들은 南北이若干 길은 矩形(方形 가까운) 石室에 南壁中央에 羨道가 달리고 天井은 抹角天井構造를 가진 것으로서 이들은 冬壽墓 등에서 시작되는 封土石室墳의 傳統이며 將軍塚 등 積石石室塚의 傳統을 이어받은 箱子形平天井石室墳(扶餘陵山里古墳)形式과는 系統을 달리하는 것이다.

이러한 古墳의 玄室크기는 큰것은 東西 二·五m、南北 三m、高二·四m에 달하는 것도 있고 작은 것은 그 折半 정도의 것도 있으나 東西 一·六m、南北 二·二m、高一·五m 정도의 것이 普通이다.

우리 芳洞里古墳은 構造의 全部가 아직 不明이고 高句麗古墳에서 보는 三角形받침 밑의 一、二段의 階段式받침이 없는 등 細部에서의 差異는 있

으나 그것은 中央과 地方과의 差異로 看做할 수 있고 抹角天井의 矩形石室이라는 基本構造에서 高句麗石室墓와 共通되고 있으며 이것을 高句麗式古墳이라고 부르는 데 아무 잘못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單室墓로서는 若干 큰 쪽에 屬하고 있다.

일찌기 今西龍은 加平郡北面梨谷里의 古墳三基를 地表調査하면서 그것이 方形墳에 蓋石을 덮은 것으로 破壞는甚하나「平壤大同江・滿洲通溝에 許多遺存하는 高句麗式墳」이라고 한 일이 있다③. 그 古墳들도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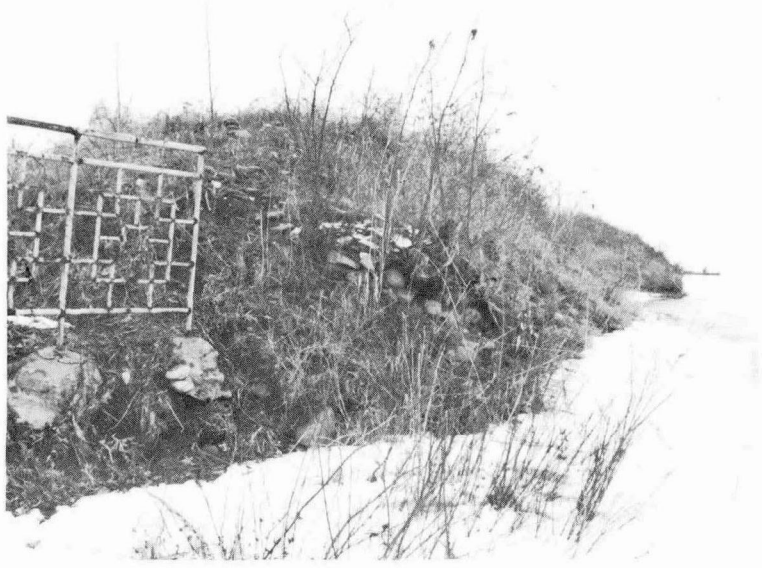


圖 7. 春川市 中島 積石塚(二基)

來는 아마 芳洞古墳과 같은 抹角天井式石室墳이었을 可能性이 크다. 新羅가 竹嶺을 넘어서 漢江流域으로 進出하는 것은 眞興王代 六世紀中葉이다 그 以前の 加平、春川地方은 高句麗領域이어서 여기에 高句麗式古墳이 分布하는 것은 當然하지만 六世紀中葉以後、新羅領이 되고 나서 住民과 倭人이 突然 新羅化했다고는 믿기 어렵기 때문에 地方의 勢力자들은 여전히 高句麗式墳墓를 襲用했을 것으로 믿어진다.

끝으로 芳洞里古墳의 年代인데 至今 副葬品 其他 典據資料가 없어 各自 決定하기 힘들으나 單室南面의 中央羨道라는 點에서 高句麗封土石室墳으로는 랄라도 中期以後의 것이고 實地로는 六世紀中葉頃을 上限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앞으로 玄室內部를 發掘調査하면 構造의 細部가 밝혀지고 遺物의 破片이라도 나와, 보다 正確한 古墳의 形式系統, 年代 등을 알게 될 것으로 期待하는 바이다.

追記. 春川中島의 南端에 있는 二基의 積石塚은 위에 모래가 덮혀 있으나 넷물로 築造되었으며 亦是 高句麗의 古式積石塚이라고 推測된다. (圖 7) (一九八一、二、一五 서울大學校教授)

① 이 方形積石塚의 正確한 位置는 楊平郡西宗面汶湖里의 北漢江畔이며 文化財管理局『八堂、昭陽泮水沒地區 遺蹟發掘綜合調査報告(一九七四年)』P.P. 三二七~三三二 參照. 이 報告文 P. 三三三에서 黃教授는 비스한 積石塚이 兩水里、琴南里에도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汶湖里積石塚은 大正五年度古蹟調査報告書 P. 一五〇에「楊平郡西宗面汶湖里의 南端 발가운데 積石塚같은 것이 있다. 方約二五尺. 高一〇尺이고 漢江 水面보다 三〇尺 높고 江에서 約一町(百미터)의 位置에 있다고 한 바로 그 古墳임이 分明하다. 現在는 江에서 約五〇m 떨어져 있다 한다.

② 昭和十一年度 및 十二年度 古蹟調査報告 및 朱榮憲 高句麗의 壁畫古蹟(東京、一九七二年) 등 參照.

③ 大正五年度(一九一六) 古蹟調査報告 P.P. 一四一~一四二 이 古墳들은 現在 그 所在을 알 수 없으며 이미 完全煙滅된 모양이다.